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386
----------	------

2025년 6월 20일
운 영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5. 2. 3., 김혜영 의원 등 58명.

나. 회부일자 : 2025. 2. 6.

다. 상정일자 : 제331회 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 2025년 6월 20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의료법’ 개정, 2016년에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성장해 왔으며, 2023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환자 수는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 2023년 현재 60.6만 명으로 집계(보건복지부)되고 있음.
- 그러나, 전 세계 의료관광순위로는 14위에 머물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나 태국 등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관광서비스의 경우에도 한류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의료관광 분야에서는 세계 메이저 국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은 불법유치수수료, 불법브로커의 활동 만연,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부족, 일부 국가에 편중된 외국인환자의 분포, 특정 진료과목 편중문제, 특화된 의료관광서비스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의료관광에이전시의 권리보장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관광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감독 하며, 의료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제64조,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
-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
- 기 타 : 해당사항 없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의 취지

- 본 결의안은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가 세계적인 의료관광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고, 의료관광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 차원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검토·추진하고자 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한 것임.

2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글로벌 의료관광 산업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주목받으며, 세계 각국이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
 - 글로벌 의료관광객은 2022년 연간 2,100만 명의 규모였던 관광객이 2025년에는 연간 약 4,400만 명의 관광객이 의료관광을 위해 국경을 넘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됨¹⁾.
 - 글로벌 의료관광 시장 규모는 2022년 1,15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32년까지 3,461억 달러로 확대되며, 연평균 11.59%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²⁾.
 - 이러한 추세에 맞춰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 UAE,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코로나19 이후의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³⁾.

1)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 6개국 의료관광 산업 동향 보건산업브리프 vol 397, 2024.1

2) 관계부처 합동,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2024년 시행계획, 2024.6

3)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요 6개국 의료관광 산업 동향 보건산업브리프 vol 397, 2024.1

- 국내 의료관광은 2009년 「의료법」 제27조 개정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에 법적으로 허용된 이후, 2016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신설되면서 본격적으로 성장하였음.
-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급감하였으나, 팬데믹 완화 등으로 2021년부터 점차 회복하여 2023년 60.5만 명으로 2022년 24.8만 명 대비 2.4배 증가하였으며 2009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시작한 이래 역대 최대 유치실적을 달성함⁴⁾.
- 더불어 현재 국내의 의료수준이 선진 의료기술과 합리적인 가격, 신속한 진단 및 치료, 그리고 첨단 의료장비와 IT 기반 시스템을 갖추어 높은 국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국내를 방문하는 외국인 환자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됨.
 - 국민 1인당 암 치료비가 2019년 기준 29만 원으로 OECD 22개국 평균(34만 원) 및 미국(67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며 주요 5년 암 생존율과 장기이식 성공률 등에서도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⁵⁾.
 - 또한, 2022년 미국 주간 매거진 뉴스위크가 발표한 세계 최고의 전문 병원 순위에서 서울아산병원(30위), 삼성서울병원(43위), 서울대병원(55위) 등 16개 한국 의료기관이 포함되는 등 국제적으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 의료관광은 단순한 의료 서비스 제공을 넘어 관광, 숙박, 외식, 쇼핑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되며, 국내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음.
 - 2019년 기준 외국인 환자와 동반자의 의료관광 지출액은 약 3조 331

4) 보건복지부,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 60만 명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 도약 '박차', 2024.1

5) 관계부처 합동, "2023년 新 한국 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2023.5

억 원으로 추정되며, 직·간접적으로 국내 생산 5조 4,981억 원, 부가가치 창출 2조 5,678억 원이 유발되었으며, 또한 취업자(자영업자 및 무급가족 종사자 포함) 4만 4,364명, 임금근로자 3만 782명에 해당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 또한 거둔 것으로 분석됨⁶⁾.

- 2023년 5월 정부는 ‘신(新) 한국 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을 발표하며, 2027년까지 연간 70만 명 외국인 환자 유치를 목표로 아시아 의료관광의 중심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지원 확대와 불합리한 규제개선 및 제도 정비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⁷⁾.

<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

비전	
전 세계가 선택한 의료 강국 ‘대한민국’	
목표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국가로 도약 (외국인 환자 유치 목표) ‘22년 25만명 → ‘27년 70만명(연 26% 성장)	
전략	세부 추진과제
1. 출입국절차 개선	①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확대
	② 비자 제한 완화 및 신속 발급 지원
2. 지역·진료과 편중 완화	① 의료·관광 연계 강화
	② 진료과목 등을 고려한 국가별 전략 마련
3. 유치산업 경쟁력 강화	① 유치기관 질 관리
	② 외국인 환자 사전상담·사후관리 활성화
4. 한국 의료 글로벌 인지도 제고	① 메디컬코리아 홍보 강화
	② 한국 의료 위상 강화

자료: 관계부처합동, 2023년 新 한국 의료 붐을 위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전략, 2023.5

- 또한 서울시는 올해 의료관광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 의료관광객 만족도 조사 및 「메디컬코리아 2025」를 정부와 공동 개최하여 협업을 통한 시너지를 제고하고, 서울시만의 특화 전략으로 문화유산 연계 의료관광 상품 개발과 의료관광 협력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6)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외국인 환자 유치 10년, 거시환경요인이 미치는 영향 분석 보건산업브리프 vol 323, 2021.3

7) 보건복지부, 2023년 외국인환자 유치 60만 명 돌파 아시아 의료관광 중심 도약 ‘박차’, 2024.1

홍보 등 다각적인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음⁸⁾.

<서울시 2025년 의료관광 사업 체계도>

프리미엄 의료관광 허브도시 서울			
추진 목표	국내·외 민관 네트워크 다각화를 통한 의료관광 수용태세 강화 및 글로벌 수요 선점		
전략	의료관광 다각적 협력체계 구축	의료관광 생태계 고도화	의료관광 전략적 홍보·마케팅
추진 사업	① 의료관광 협력 기관 운영 ② 의료관광 파트너스 데이 개최 ③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협의회 운영 ④ 정부 주최 「메디컬 코리아 2025」 참여	⑤ 「서울의료관광센터」 개편 및 운영 ⑥ 의료관광 협력 기관 지원사업 운영 ⑦ 의료관광 협력기관 역량강화 교육 실시 ⑧ 의료관광객 실태 및 만족도 조사 ⑨ 문화유산 연계 의료관광 활성화 연구	⑩ 서울의료관광 국제 트래블마트 개최 ⑪ 서울의료관광 해외 현지 홍보·마케팅 ⑫ 서울의료관광 플랫폼 유지·보수

자료: 서울특별시 관광체육국, 2025년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 2025.2

- 이처럼 의료관광은 다양한 분야가 연계된 복합적인 영역으로, 체계적인 정책 검토와 실효성 있는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가 요구됨.
- 2023년 서울시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는 47.3만 명으로 2022년 14.6만 명 대비 3.2배 증가하였으며, 이는 2023년 전국 외국인 환자 60.0만 명 중 약 78%를 차지하는 수치로, 서울시는 대한민국 의료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⁹⁾.
-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서울시의 의료관광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료관광 산업의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됨.

8) 서울특별시, 2025년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계획, 2025.2

9)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3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통계분석 보고서, 2024.5

- 또한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서는 관광체육국(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시민건강국(보건복지위원회), 경제실(기획경제위원회) 등 여러 소관 부서 간의 업무 연계가 필수적이며, 복수의 상임위원회 소관과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특별위원회 구성요건¹⁰⁾에도 부합함.

3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 결과

- 결의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37조제2항¹¹⁾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사전협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경제실을 소관하는 기획경제위원회는 사전협의와 업무지원에 동의하였으며,
 -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관련 부서 의견 조회 결과, 기획경제위원회는 특별위원회 구성에 찬성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이외 부서 의견 없음.

담당 연락처

02-2180-7688

10)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① 의회는 여러 상임위원회의 소관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경우 관련된 상임위원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하며, 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에도 관련된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6. 토론요지 : 없음.

7. 심 사 결 과 : 원안 가결.

8.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김혜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386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2월 03일

발 의 자: 김혜영, 강석주, 경기문,
고광민, 곽향기, 김규남,
김길영, 김동욱, 김영철,
김원중,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지향,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민병주, 박상혁, 박 석,
박영한, 서상열, 서호연,
소영철, 송경택, 신동원,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유만희, 윤기섭, 윤종복,
이경숙, 이민석, 이병윤,
이봉준, 이상욱, 이숙자,
이승복, 이종배,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이희원,
임춘대, 장태용, 정지웅,
채수지, 최민규, 최진혁,
허 훈, 홍국표, 황유정,
황철규 의원(58명)

1. 주문

-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서울시의 의료관광 현황을 파악하고 의료관광정책을 개발하여, 서울의 의료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 위원 수는 15명 이내로 하며 활동기간은 위원선임일로부터 6개월로 하되, 필요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 본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 회의에 제출한다.

2. 제안이유

-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의료법’ 개정, 2016년에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성장해 왔으며, 2023년 12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외국인환자 수는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 2023년 현재 60.6만 명으로 집계(보건복지부)되고 있음.
- 그러나, 전 세계 의료관광순위로는 14위에 머물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나 태국 등에 뒤지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음.
-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은 세계 최고 수준이며, 관광서비스의 경우에도 한류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추었지만, 의료관광 분야에서는 세계 메이저 국가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음.
- 또한, 현재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은 불법유치수수료, 불법브로커의 활동만연,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부족, 일부 국가에 편중된 외국인환자의 분포, 특정 진료과목 편중문제, 특화된 의료관광서비스의 부재 등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으며, 의료관광에이전시의 권리보장 등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의료관광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 감독하며, 의료관광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관광진흥법,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4. 이송처

-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 의료관광은 최첨단 의료시설과 서비스, 기술을 기반으로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단순히 치료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휴양, 레저, 문화활동을 연계하는 서비스로 전 세계 선진국을 중심으로 발전한 고수익,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 ‘의료법’ 개정, 2016년에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라 성장해 왔다.
- 전 세계 의료관광의 시장규모(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24)는 2022년 1,156억 달러를 기록했으며, 2032년까지 연평균 11.59% 성장해 3,46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2025년에는 연간 4,400만 명의 의료관광 수요가 창출되고 있는 높은 성장성을 보이고 있는 산업이다.
- 우리나라의 외국인환자 수는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성장세를 보여 2023년 현재 60.6만 명으로 집계(보건복지부)되고 있으나, 전 세계 순위로는 14위 수준(국제헬스케어리서치센터 조사, 2020년 기준)에 머물고 있으며, 특히 아시아에서는 태국이나 싱가포르보다 낮은 순위로 나타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 수준은 세계 최고이며, 관광서비스의 경우에도 한류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은 아직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다.

- 이처럼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이 아직 미흡한 이유로는 업계에 만연한 불법유치수수료 문제, 불법브로커의 활동, 의료관광 전문인력의 부족, 일부 국가에 편중된 외국인환자의 분포, 특정 진료과목 편중문제, 특화된 의료관광서비스의 부재, 의료관광에이전시의 권리제한 등의 문제에서 야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2027년까지 연간 70만 명의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 아시아의료관광 중심국가로 도약하며, 이를 위해 불합리한 규제개선, 제도정비를 진행할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 우리나라를 찾는 의료관광객의 88.9%는 서울 및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서, 서울특별시에서 의료관광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의료관광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은 시급히 필요하다.
- 이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대한민국의 의료관광산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의료관광 관련 기업, 관련 기관, 서울시 행정조직을 연계하여 의료관광 정책을 개발하고, 관리감독하며, 의료관광 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의회 의료관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책임있는 활동을 펼쳐나갈 것을 결의한다.

2025. 1. 24.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